

## 외설 시비에 관한 일곱개의 에세이

아래 글들은 2004. 1.9-1.20 대안 공간 풀에서 열린 경원대학교 회화과 서양화전공 졸업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외설 시비에 대한 게시판 글들을 퍼온 것이다. 댓글들은 공개되는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모두 뺐다. 예컨대 반이정의 첫번째 글에는 32개의 댓글이 달려있는데 그걸 그대로 다 보고싶으신 분들은 다음 카페의 '경원 갤러리'로 들어가서 기본 게시판에 가보면 된다. 그냥 한번 재미있게 읽어주시길 바라며.....

### 도록 이미지'외설'제기에 대한 나의 입장입니다. (반이정)

전시를 코 앞에 두고, 이제 와서 미술에 관한 원론적인 토의를 해야하는 건지, 약간 막막한 기분이 듭니다. 어제 명동으로 이동하는 지하철 안에서 손성진 조감독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 경원대에서 있었던 토의 내용을 간략히 전달해 준 후, 대화 말미에 '약간의 문제가 생겼다며' 제게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 문제의 요지는 어제 자리를 함께 한 학생들이라면 다 알겠지만, 다시 정리해봅시다. 일부 학생들이 웹하드에 올려진 제 작업에 문제 제기를 했다는 거였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지요. 이 같은 몇몇 학생들의 불편함은 이미 저 자신도 예견한 것이었습니다. 전화 상으로는 제게 '일부'학생이라고 전했으나, 그게 그 이상인지, 혹은 조감독 혹은 선생님도 포함된 의견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현재 제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들은 말은 몹시 불쾌하더군요. 왜냐면 그건 예견조차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부 학생들이 제 작업을 다른 걸로 교체하거나, 일부를 가려달라는 요구를 '전해달라고' 조감독에게 부탁했다더군요. 왜 그걸 조감독에게 부탁을 합니까? 물론 압니다. 제가 직접 요구할 상대는 아니라고 생각들 했겠지요. 그래도 그런

의견 개선방법은 뭣뭣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딱딱하게 예의범절 따지는 성품의 소유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외부 초대자에 대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저는 외부인이고, 원인 제공자이기도 하니 마음을 가다듬고 차근차근 제 생각을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몇 가지 시인부터 하고 글을 시작하지요.

- 제 작업이 선정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 제 작업이 뛰어난 작품이라고 개인적으로 느낀 바가 전혀 없습니다.
- 제 작업이 일부 혹은 특정 관객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위에 나열된 저의 고백 때문에, 제 3자가 제 작업의 교체 내지 일부 편집을 요구하는 사태에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 일까요? 제 개인적인 고집 탓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비슷한 이치로 이 전시에 출품을 결정한 학생들의 작업들 역시 비슷한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다시피 저는 이번에 도록 글을 작성했습니다. 글을 쓰기 위해 학교 수업 동향과약을 위해 몇 차례 방문했고, 학생들의 성향을 좀 읽어야 했습니다. 전시의 성격상 완성된 작품은 제대로 볼 순 없었지만 그런 사실에 불만을 가진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전시 성격이 애시당초 그렇게 설정되었기 때문이지요. 느슨하게 말입니다.

하지만 좀 우려되는 점은 있더군요. 지나치게 학생 개개인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경우 작품의 완성도 역시 ‘주인을 따라’ 완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나는 도록 글 작성을 위해 웹하드에 올려진 여러 학생들의 이미지를 다운받아서 검토했습니다. 계중에는 ‘제 개인 안목’에 비추어볼 때 ‘뛰어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한 학생도 있었고, 또 ‘특정관객에게’ 비아냥을 살 수 있는 무성의한 것도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언급하진 않았으나, 도록의 말미에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제 입장을 써서 이미 디자이너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제, 코디네이터에게 일부 학생들의 불만을 전화를 통해 들었습니다.

제 생각을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부 혹은 다수의 학생들 작업을 두고, 반이정이라는 개인이 자신의 인상/안목에 비추어, 뛰어나지 못하고, 유쾌하지 못하고, 혹은 선정적이라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개인 인상에 기대어 그 작품들의 편집 내지 교체를 요구하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발상이 ‘특별한’ 출전을 기획하자며 모인 경원대학 졸업반 출판자들 내부에서 제기되었다는 점이 솔직히 몹시 실망스럽습니다. 왜 제가 허망하게 생각한 걸까요? 여러 학생들이 그토록 선망과 혐오의 이중 감정을 갖고있는 ‘제도권 미술관’에서조차 그 같은 문제제기가 오늘날 과연 타당하거나 한 지조차 저는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통상 그런 문제제기는 언제나 미술과는 무관하게 살아온 비전공자 출신의 순박한 관객들과 보수단체들에 의해 부풀려졌고, 그것이 창작 환경을 거세게 흔들어 왔습니다. 이에 힘없는 미술계는 맞대응 하느라 진땀을

빼곤 했거든요. 어째서 진땀을 뺄까요? 자신이 없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제기는 항상 비겁한 전제와 명분을 앞세우고 있어서 이해당사자(즉 창작자)를 난처하다 못해, 비참하게 만듭니다. 바로 ‘도덕적 기준’이 그것이지요. 쉽게 얘기할까요? “이거 상식적으로 너무한 거 아닌가”, “이걸 당신 부모에게 보여줄 수 있는가?” “당신 딸이 이걸 보면 좋겠어?” 자 이런 막무가내에 가까운 도덕 근본주의 앞에서 작가가 할 수 있는 외교적 발언은 사과 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는 논리가 힘을 못 씁니다. 철지난 명분 앞에 가장 나약한 것이 예술입니다. 우리 동업자끼리는 이러지들 맙시다. 외설스런 그림 하나에 나라 무너지는 소리라도 들은 양 호들갑 떨진 말자는 겁니다. 모두가 금새 무시하고 넘어갈 그림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즈음해서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위에 제가 적은 고백을 다시 한 구절만 재인용합니다. “저는 제 작업이 선정적이고, 포르노그래피적이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함께 전시하기로 한 미술전공자 집단, 그것도 특별한 전시를 표방한 출판자 집단의 일부에 의해 편집 내지 교체를 요구받을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마인드의 소유자들이 굳이 이 특별한 전시, 서바이벌 게임에 참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졸업자니깐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원대 졸전은 출품을 안 해도 무방한 걸로 압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우선 조감도를 ‘통해’, 저에게 작품의 편집 내지 교체를 요구한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그런 요구의 이면에는 어떤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그 작품이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기했을 거란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보고 싶네요. 저의 작업은 ‘누구를 위해’ 교체되고 편집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걸 저는 듣고 싶습니다. 만일 문제 제기를 한 학생들이 개인의 취향에 상반되고, 불편함을 야기했기 때문이 그 이유라면, 저는 답할 가치가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동일한 이유로 제가 학생들의 작품에 느끼는 불편함을 호소하며 당신들의 작품의 편집과 교체를 요구할 수 있겠지요. 물론 저는 그런 불편함을 느껴도 당신들에게 그런 요구를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노파심에서 한가지 묻습니다. 아니 분명 노파심이나 저의 억측만은 아닌 듯 해서 묻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심려하는 것이 요컨대 이런 겁니까? 도록에 찍혀 나올 외부인의 민망하기 짝이 없는 포르노 그래픽이 자신들의 졸전 기념을 훼손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혹은 부모님이 보실까봐 민망한 겁니까? 만일 그런 마인드였다면 굳이 A4 용지 반쪽에 단가도 낮은 질 낮은 도록을 고집했을 이유도 없었을 테고, 미대에서 초유의 초대작가 개념을 도입했던 취지 역시 의미를 상실하게 되겠지요. 전적으로 작업은 관객에게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설령 여러분의 친지와 하객들이 도록 한켠에 실린 제 작업에 눈살을 찌푸린다고 한들, 그것과는 사실상 관련도 없는 여러분 개개인에게 누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 기상천외한 연상작용과 도덕과잉부터 교정하려는 노력이, 이 특별한 전시보다 더 중요한 현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만일 “명색이 미술평론가인데, 함께 전시하는 친구들의 작업이 너무 시답지 않아서 내 친구들이 도록을 볼까봐 부끄럽다. 몇몇 학생들

작품은 조금 가려두거나, 다른 걸로 교체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기획 자문’ 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일까요?

어제 조감독에게 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단 그런 요구를 들은 이상,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자신이 내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할

나이입니다. 우선 그런 요구를 전해온 학생들과 저의 작업을 도록에 수록하지 말고

공란으로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대책이라고 봅니다. 그 공란에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하거나

아예 검정색으로 비워둡시다. 이 역시 이 특별한 전시인, 서바이벌 게임의 취지에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봅니다. 전시 준비중에 돌발적으로 터져나온 미술계 현안! 이처럼 선명하고

특별한 전시가 또 어딴겠습니까?

일단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반이정 ban E jung <http://dogstylist.com>

음,. ( 김용익)

음,. 우선 이 전시가 수업, 교육의 일환으로 열리는 전시라는 점을 언급하는 것으로 말문을 열어 봅시다.수업이니, 교육이니 하니까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모 그런 뻔한 애길 하려는

결루 들릴수도 있겠네요. 글치만 감독이 생각하는 교육, 수업은 경험과 삶과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교육의 장에 모인 공동체가...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무얼 '가르친다'는 걸 전 상상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려서도 그랬고 지금도 감독은 누가 날 가르치는걸 참지 못해요.쫘 말장난 같지만 우리는 가르침을 '받는'게,아니라 배우는겁니다. 모, 얘기를 너무 샅길로 빠트리진 안겠습니다.

이 전시를 통해서도 서로의 생각과 정보를 나누는일이 이뤄져야겠고 특히 이번의 '선정적 드로잉'전을 중심으로 벌어진 논쟁들을 통해서도 서로의 삶을 나누는 계기가 되어야한다고 봅니다.즉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거이지요. 모, 이렇게 얘기해 노코 보니까 세상의 모든 활동이 서로의 삶과 정보를 나누는 것일뿐대는 교육과 수업이 아닌게 업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도권 교육현장은 모, 이런 세상사 중에서 특별히 삶과 정보를 나누는 훈련을 하는 장소이자 때라고 정리할수 있겠네요.

서두를 이렇게 장황하게 쓰는 이유는 ...짐작하시겠지만 누가 누구와 논쟁을하여 승리, 혹은 패배하는 논쟁이 아니라 서로가 이기는 , 아 이런 표현 보다는 서로가 맘 상하는 일 업시 우스며 논쟁이 마무리되어야 되겠다 뜻에서 입니다. 여기서 감독의 역할은 의견의 조정자이자 동시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감독 자신의 삶의 경험을 개진하며 논쟁에 참여하므로써 자칫 표류하게 될지도 모를 상황을 마무리짓는게 될테지요. 언제까지나 시간을 끌수있는 상황이 아니니까요.

감독, 게시판 글들을 주의깊게 읽었고 몇몇 학생들과 장시간 챗을 통해 얘기를 나누었던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몇가지 생각들을 정리했습니다. 우선 전제하고 시픈 거슨 반선생의 드로잉을 선정성을 문제삼아 팜프렛에서 '수위조절'하는 그어떤 '기관'도 '조직'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 모두 그 자체가 기관이라면 기관이고 조직이라면 조직일 뿐이지요. (이런걸 기관업는 신체라고하나 혹?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흠..)

감독은 물론 객적으로 반선생의 드로잉이 어떠한 가감도 업시 팜프렛에 실려야한다는 생각을 갖고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체로 감독과 의견이 같은 학생들이 많다고 보았고 그 드로잉에 불편함을 느껴 의견을 낸 학생들 조차도 이 원칙 즉, 개인의 작업이 존중 되어야한다는 점엔 이견이 없다는 점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감독은 예술 창작의 자유가 모든 가치에 우선한다고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술 창작의 자유가 어처구니 업시 속박당하는 곳에서는 감독의 이와가튼 생각이 말로되어 드러날 때 독으로 작용될 위험이 다분히있다고 보기땀에 서빨리 말로 내뱉지안습니다. 개인의 예술 창작의 자유는 존중 돼야합니다.

우선 한가지 먼저 결정하고 넘어가지요. 반선생의 드로잉은 하나의 가감 업시 그대로 실리도록 합세다.

이제 서로 엇갈린 감정들을 보듬는 일이 남았네요. 이렇게 결정되므로써 '소수의견'을 낸 학생들이 그 과정에서 맘에 상처입지 아났을까 염려가 됩니다. 조감독으로부터 '황당한' 전화를 받고 맘 상했던 반선생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 이런 립서비스가 별루 도움이 되지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오히려 사태를 잘 분석하하고 이해함으로써 꼬인 감정이 좀 풀리리라고 봅니다.

조감독에게 위로의 말 보다는 오히려 책임을 물어야할지 모르겠네요. 이러한 사안은 학생들로부터 듣고 곧바로 반선생에게 전화할 일이 아니라 일단 감독에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사안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에는 반선생이 학생들에게 낯선 존재였죠. 삶과 경험을 나누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선 시간의 축적에 따른 감정과 정서의 공감대가 구축 되어야하는데 반선생과 학생들 사이엔 그럴 겨를이 없었다는거죠. 그러다보니 맘들이 상하게 되는 논쟁-교육의 비효율성이 비집고 들어오는거죠.

학생들이 불편을 느끼며 사용한 언어들 잘 숙고하여보면 그들이 그들의 불편함을 표현할 적절한 언어를 알고있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제도권 매스미디어가 제공하는 포르노에 대한 언어 즉 사고의 틀을 그대로 자기의 것으로 쓰고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매우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 성, 섹스, 포르노-예술 이런것들에 대해...이 혼란의 매듭을 약간만 풀어주면, 쓰고있는 사고의 틀을 약간만 벗겨주면 훨씬 그들에게서 우리(감독, 조감독, 반선생, ...)가 경청해야할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얘기가 자못 추상적으로 흐르는군요.

반선생이 이미 언급했듯이 이 드로잉을 보고 불편을 느낀 학생들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반선생의 글에서 아쉬운 점은 불편을 느낀 그들의 반응에 논리적으로 정교하게 맞대응함과 동시에 왜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 있으리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스스로 좋은 작품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선정적이고 포르노 그래픽이란 것을 부인하지 않으며' 굳이 이런 작품을 맹글었는냐에 대한 다소 친절한 설명이 있었으면 조치 안았을까 하는 점입니다. 반선생은 그건 말안해도 서로 다 아는 사실로 설정해 노은듯 비켜가는데 그건 그러치 않습니다. 챗을 한 학생들은 그걸 궁금해 했고 그걸 감독 나름대로 설명해 주는것만으로도 그들은 훨씬 편해지더군요. 물론 그 설명을 넘어선 지점에서 그들은 여전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머리로 그 작품의 의도를 이해해도 그 드로잉에 대한 '역겨운 감정'은 여전히 남아있는거죠. 이 역겨움을 그들은 미성년자 ,수위조절 운운 기존 매스미디어의 언어에 기대어 표현한 것으로( 표현할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감독은 보고있어요. 그들에게 제대로 그 역겨움을 표현할 언어를 소개하고 싶고 또 그것을 통해 여성의 언어가 배제되어있는 포르노-예술에 대한 남성들의 시각에 반성적 성찰을 할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겠다고 본 감독은 에.. 또 생각하는 바 되겠습니다. 얘기가 스스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데로 빠져 드네요.

한마디만 더하고 얘길 마무리 짓겠습니다.

반선생의 드로잉에 대해 일부 학생들이 느끼는 역겨움은 성기중심적 성애( 흠.. 페니스 앤 버라이어티 센트리즘으로 이름 붙여보니 그럴듯한걸...그러나 흥맹스럽게 불끈 솟아오른 페니스로 그 시각적 효과의 극대치를 구사하는 성기중심적 성애...)에 대한 여성들의 반감의 표현으로 감독은 읽고있으며 그 역겨움의 표현이 기존의 제도권 매스미디어적 언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표현되므로써 반선생이 발끈('불끈'이 더... 나올라나...)하게 된 것이 아닌지 ...

쭝 더 하고 시픈 얘기(예컨대 비슷하다는 판 여학생의 그림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나 일단 여기서 그만.....



찬바람썰, 기침 콜록 , 생생 감독.

## 임희령인데 급한일 ( 임희령)

자료실에 이번 출전에 쓰일 그림이 있습니다. 헌데 풀 건물 관장님께서 제 그림의 강도에 따라 설치를 허락 할 것 같습니다. 제 그림 샘플을 보여 달라고 하시는데 어느것이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고 말씀 좀.....

## 희령에게 (김용익)

관장님께 보내는 호소문을 아래에 써 봤다. 조감독이 널 이걸 갖고 관장님을 만날꺼다 그 답에 또 얘기 하자

관장님께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교수 김용익입니다.

저희 졸업생들이 이번 1월 9일부터 관장님 소유의 건물에 있는 대안 공간 풀에서 전시를 엽니다. 그 중 한 학생이 화장실 공간을 이용한 작업을 선보일 예정인데 관장님의 허락을 먼저 받아야 할듯하여 이 학생의 작업을 제 나름대로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이름이 임희령입니다)은 그동안 계속 성과 관련된 우리의 위선적 허위의식을 주제로 삼아 작업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성을 드러내놓고 떳떳이 얘기할 수 있는 건강한 사회를 꿈꾸는 작업을 해왔다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넘쳐나는 것이 포르노입니다. 그리고 인기 연예인의 누드사진 휴대폰 서비스는 이제 화젯거리도 안될 지경이 되었고요. 이러한 거대한 흐름의 와중에서도 여전히 섹스,성에 관한 얘기는 드러내놓고 얘기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돼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섹스관련산업이야말로 번창일로에 있는것도 또한 우리의 현실이죠.

임희령은 이 모순된 현실을 주목하고 그것을 작품의 주제로 삼았습니다. 임희령의 이번 작업은 제가 보기엔 “화장실의 낙서화”라고 이를 붙일수 있는 것입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면 성적인 낙서화를 왕왕 볼수 있습니다. 화장실 공간은 자신의 신체의 성적인 기관과 적라나 하게 만나는 밀폐된 공간 입니다.거기서 사람들은 자신의 성적인 판타지를 글이나 그림으로

풀어놓습니다. 임희령의 그림은 이것과 유사합니다.

임희령이 굳이 화장실에 이런 성적인 그림들을 “설치”하려고 하는 이유는 밀폐된 공간에서만 풀어놓을수 있을뿐 공공적인 공간에서는 심하게 제약받는 우리의 성적 담론의 현주소를 상징적으로 드러내보이려는 의도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장실 낙서화”를 이번 저희의 전시에 굳이 포함시키는 이유는 전시회라는 미술행위에 포함 시키므로써 화장실 낙서화가 발언하는 성적인 담론을 공공영역으로 끌어내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있습니다.

임희령의 작업에 대해선 여러가지 다른 의견과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의 작업이 그 의도를 성공적으로 전달하지 못할 수도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일관되게 성에 관한 우리의 이중적, 위선적의식을 드러내려하고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확인 할수 있습니다.

제 글이 좀 재미없네요. 다시 읽어보니 “화장실 낙서화가 발언하는 성적인 담론을 공공 영역으로 끌어내겠다”는 말도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고요. 요 부분만 좀 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공중화장실에 갔을 때 낙서화를 봤다고 합시다. (저는 고속버스터미널 건너편 상가 화장실에서 본적이 있습니다만) 지독히 외설스러운 그림과 글이 써있지요. 과장되어 있기도 하지만 인간의 성적인 욕구를 적라나하게 드러내는 그 그림을 우리는 호기심과 흥미로 봅니다. 그러나 만일 그 그림이 화장실 밖으로 외출을 하여 공중의 영역에 들어라도 올작시면 그 그림은 눈살을 찌푸리게하는 “놈”으로 신세가 전락하기 십상입니다. 이 괴리감이 어떤 사람에겐 당연하겠지만 임희령에게는 문제꺼리가 된겁니다. 그것을 문제꺼리로 삼는 임희령의 의도는 분명하다고 저는 봅니다.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우리안의 윤리, 혹은 도덕 의식”을 문제 삼는것이지요. 그 윤리, 도덕의식이 자기 방어 행위를 하면서 다른 잣대를 가진 사람들을 지나치게 억압하려든다는게 문제지요.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이렇게 억압하려하는 세력이 정치 문화 사회적으로 기득권을 가진 세력일 때 특히 더 문제가 되지요. 화장실 낙서화가 발언하는 성적인 담론이 우리 사회에서 언제나 억압을 받는 편에 있다고 주장하는건 아닙니다. 그 낙서화는 또 다른 억압자가 될수도 있어요. 예컨대 남성 성기 우월주의의 요소가 분명 거기엔 있고 따라서 여성 성기에 대한 억압자가 될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조차 허용하지 않는 원초적, 압살적 억압, 그게 이시점에서선 문제라는 의식이 임희령의 작업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일관되게 이러한 의식을 가지고 작업해왔음을 임희령의 지도교수로서 확실히 말씀 드릴수 있습니다.

부디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미술창작문화발전에 도움을 주십시오. 부탁 드립니다.

2004. 1. 5

임희령의 지도교수 김용익 드림.

**표현의 자유와 검열의 사이 - 임희령작품의 비화** ( 손성진)

오늘(5일) 2시에 김용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

오늘 해결해야 할 일은 작가는 우리기획의 다음,다성을 거세 당하지않게 하여 볼거리와 개념을 지켜내고 더 나아가 미술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외설과 검열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선례를 보여주는 무겁고도 막중한 책무가 아닐수 없다.

나는 감독님의 편지를 들고 용희와 마음을 한번 더 가다듬으며 관장님과 면담을 요청했다. 관장님은 비교적 우리에게 최대한 배려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고 설득을 시작해 보았다. 관장님이 우려하시는 지점은 1월8일에 오픈하는 서예 개인전의 작가가 70대의 여성작가 라서 동료와 관람객들이 60대이상의 노년층이라 화장실 이용시에 불어닥칠 과문에 대하여 감당할수 없다는 입장이 었다. 그것은 과문으로 끝나지않고 백악예원의 이미지에 적지않은 손상을 입힐것 이라는 걱정이였다. 나는 그때, 감독님의 협조요청의 편지를 보여 들였고 관장님은 상당히 성의있게 읽어 보셨다. 그럼에도 감독님의 입장을 이해하고 미술작품의 검열과 창작의 자유에 대하여도 지지의 입장을 보여 주셨지만, 백악예원을 출입하는 대다수 보수층의 관람객들을 의식하지않을수 없는 입장을 분명히 하셨다. 그래서, 한번더 몇가지 제안을 했다.

\*일단, 화장실에 설치를 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철수를 한다.

\*반발이 예상되는 남자화장실은 표현수위가 낮은 것으로 한다.

\*그것도 안되면,표현수위가 낮은 것을 여자화장실에 높은 것은 전시장에 설치한다.

결과는 세가지 모두 곤란하다고 했다.

희령이의 이미지는 웹하드로 모두 본 상태였고, 난색을 표하고 있었다.

오히려, 관장님께서 우리가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시장 설치를 권유했다.

할수있는 방법과 말은 모두 동원한 것 같다. 더 시간을 끄는 것은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여 화장실의 설치를 포기한다고 말씀 드리고 문을 나셨다. 나오는 길에 전시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두번의 에피소드를 통하여 여러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갔다. 분명한 것은 이과정에서 모두 작업의 일부가 되어서 우리 전시를 보러온 관람객들에게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는 어떻게 희령이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구현할지 고민해야 할것같다. 희령이가 낙담하지않고 이사건을 작품으로 수용하여 더 큰것을 얻을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바랄 뿐이다.

## 희령의 좇 같은 심정... ㅎㅎ ( 임희령 )

모라고 써야하나....

사실은 욕 밖에 안나옵니다. 기분이 참으로 씹쪽꾸리합니다. 출전을 준비하면서 아니 출전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언제부턴인지는 모르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여러해를 거치며 만든 작업이 별 의미없어지게 되었다는게.... 수십년간 작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졸라 씨발입니다.

물론 작업을 하다가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함은 머리속에선 이해가 됩니다마는 마음에서는 졸라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미술계에 한번 살아 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이리저리 쟁구를 굴러가며 내 판에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번일은 저 보고 살지 말고 죽으라는 소립니까?

우선 우리나라의 미술 뿐만 아니라 예술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인사동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어의가 없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한것도 아닌데 노친네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고 ..... 참나....그것도 갤러리비는 다 챙기면서 갤러리안도 아닌 화장실을 잠깐 빌리자는건데 ... 돈없는 설움, 씨발 내가 건물주가 아닌것이 죄라면 죄겠지요..... 근데 그 노인네들은 갤러리를 빌리면서 화장실도 빌렸답니까? 화장실을 빌리는데 돈을 더 낸나요?

사실 우리나라가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는 것은 압니다만 노인네들을 공경할 일이 따로 있지 ....우리나라를 젊어지고 이끌어내야 하는 것은 젊은이라면서 ...

왜 말도 안되는 소리들은 지껄리는지...

솔직히 "성" "섹스" 라는 것이 가볍게 꺼내어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올 나라)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이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지 않음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쏟아져 나오는 하나의문화코드라고 생각합니다. 섹스는 본능이고 생존입니다. 2세를 탄생시키는 것 말고 우리가 생존하기위해 필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저 또한 올라바이, 어무이의 섹스를 빌어 나온 몸이고 내 주변의 동기들, 교수님,,,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러하고 또 우리는 앞으로도 섹스를 빌어 누군가를 만들어 낼것입니다. 그리고 생존적인 것 말고도 우리는 섹스를 통해 즐거움을 얻습니다. 어떤 년, 놈들은 포르노 사이트를 보며 딸딸이를 치며 희열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또 섹스의 테크닉을 익힘으로써 지식의 장을 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듯 접하고 있는 문화의 코드를 제가 이용하여 하나의 작업으로 만들어 보는 것을 이렇듯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억지로 만들어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다들 아는 요즘은 초등학생도 아는것들을 굳이 숨겨두려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노인네들의 파워는 좋습니다. 씨발....우리네보다도....노친네들의 눈살 한번이 저의 삶의 한 부분을 죽였습니다.그 노친네들에게 말하고 묻고 싶습니다. 지들은 즐길데로 다 즐겨놓고 이제와서 왜 고상한척 하느냐고?

닝기미 저는 안 죽습니다. 아니 못 죽어 주겠습니다. 정치계보다도 더 드립다는 미술계를 이제야 비로소 느낍니다.

그럼 저에게 그러시겠죠....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

천만의 말씀 ! 만만의 콩떡 같은 개소리!!!!!!!!!!!!

저는 이 졸전의 컨셉을 따르기 위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살아남으렵니다. 왜냐구? 묻지마!!!!!!!! 니들에겐 나의 생각 조차 중요하지않은데 왜몰어 ,,씨발년,놈들아!!!!!!!!!!!!!!

fucking korea!!!!!!!!!!!!!!!!!!!!!!!

## Re. 희령의 좃 같은 심정...ㅎㅎ (반이정)

우여곡절끝에 비슷한 문제로 몸살을 앓았던 사람이 한마디 거들어야 겠다는 생각은 있었지만, 사실 저의 경우는 사태가 '어물쩍 넘어가버서' 나도 맘이 편치는 않아요.

우선 출전 작품을 뜻대로 제시할 수 없게된 점 아쉽게 생각합니다. 나도 아래에서 내 입장을 장황하게 쓴 글을 남긴바 있지만, 일단 너무 흥분하면 이미 었어진 일의 경우, 사태를 바로잡기 어렵게 마련입니다. 이런 조언할 처지는 못되지만, 일단 전시장 내부에서 이걸 '소화'해내는 방식을 좀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너무 급하긴 하지요.

- 우선 조감독과 협의하에, 본의의 작업(화장실 공간에만 적합한)이 전시장에 내동댕이 쳐진 경위와 좌절의 면면에 대해, '제시'할수 있는 연출법을 고민해보길 바랍니다. 그냥 전시하면 볼때마다 억울하겠지요.

- 위와 연결되는 애긴데, 나는 내 '사건'있을 적에, 그림을 정말 축소해서 도록에 싣고, 제 입장을 글로 적어올릴 생각이었어요. 역공을 취하는 거죠. 물론 원본이 실리는 것보다는 화가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뜻하지 않은 사태'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응을 작업으로 개진하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러니, 기왕 전시장안으로들어오기로 한거, 전시장 내부에서 '본인의 취지'를 직설적이건, 간접적이건, 개진할 수 있도록 연출자들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작품 바로 옆에 이 사태의 경위를 너무 길지 않게 적어둡시다! 그게 분을 풀어주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겠군요.

- 누군가, 이런 검열 문제가 전시중 '두번'이나 돌출한 만큼 16일 토론회에서도 이걸 다뤄보자고 얘기하던데, 고민은 해보겠습니다만, 이게 원체 '출전의 문제점'에 관한 거여서 논지를 벗어날까봐 그게 걱정입니다. 하물며 저도 연루된 일이어서, '제 개인 해명'성 논의가 될까봐 우려되기도하고요.

- 미술계의중심 인사동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을 했던데, 그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이란 뜻은 아니니 오해는 없길. 상아탑인 학교에서도 제기되었잖습니까? 그런데 사회의 때가 묻은 사람들이 그런 '요구'를 하는 건 자연스런 현상입니다. 물론 지지하진 않지만요. 해서 이런 예상되는 장해물이 산재한 미술판을 이번에 경험한 만큼, 임희령 학생은 뭔가 하나 교훈을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저 역시 이번에 똘

가 생각할 꺼리를 얻었다고 자위합니다.

- 너무 심려하지 말아요. 이런 '전과'는 나중에 비슷한 전시기획이나 동호인들에게 포착될 수 있는 좋은 기회, 즉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건이 학생에게 더 많은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한 축이 되는 사건이 될거라고 감히 짐작하고 싶습니다. 물론 대신 꾸준히 '비슷한 작업'이나 '컨셉'으로 세상에 부딪치는 노력을 계속 경주해야 겠지요.

말이 좀 길었군요.

ban E jung

<http://dogstylist.com>

P.S.

난 요새 연 이틀째 홍대 입시채점으로 밤에 돌아오면 피곤해서 게시판에 글도 못올리고 애덜과 챗도 못하고 강 쓰러져 잡니다.어제도 11시 넘어 들어와 샤워하고 막 잠들려는데 뽁뽁 거리며 문자가 와서 '감독님 짐 주무시나요?'

메신저 접속하란 메시진데...피곤하긴 하지만 모, 이 정도면 사실 행복한 감독이져.오늘이 오픈날인데 역시 또 채점갔다와야 합니다. 오픈 행사에는 참여 못하고 뒷풀이에나 참여할수 있을듯. 디피때도 드러다 보지 못했는데 조감독이 훌륭히 잘 하고 있어서 잘 진행되고 있는줄 압니다.

오늘 멜을 열어보니 포럼에이에서 칼럼 원고 청탁이 와있더군요.그러치 안아도 이번의 '외설' 시비문제를 두고 게시판에 올려진 글들을 편집하여 어디에 올릴까 구상을 하고 있었는데..그래서 사실은 애덜에게 미리 물어본적도 있어요.댓글 올린 애덜에게...개들은 자기네 댓글이 공개되는걸 반대 합니다. 그래서 상의를 하는건데 애덜의 댓글을 비롯한 모든 댓글은 뺀 상태에서 기본게시판의 267번(반이정), 271번(김용익), 291번(임희령), 293번(김용익), 297번(손성진)305번(임희령),308번(반이정) 이리케 일곱개의 글을 약간의 배경 설명을 곁드려 포럼에이 칼럼에 올리는것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요 부산 비엔날레 전시팀장님?